

“남강유역 공렬토기의 전개 및 여타토기와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정대봉 (울산문화재연구원)

발표자는 남강유역의 諸 유적들을 중심으로 공렬문토기¹⁾의 출토현황 및 각 유형별 출토토기와의 관계, 공렬문토기의 전개양상을 꼼꼼하고 알기 쉽게 나열하였다. 대부분의 편년과 전개양상에 따른 시각이 토론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주제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밝히고 간단히 질문을 하는 바이다.

발표문에 명기된 것처럼, 학사적으로 보면, 남강유역은 1990년대 남강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남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 조사에 따른 대형 유적들이 조사되면서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물질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와 관심은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근거가 된 돌대문토기에 집중되면서 기타 토기군이나 늦은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탓에 이 지역의 공렬문토기의 전개와 여타 토기와의 관계에 대한 自覺과 研究는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토기문화를 재해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된다.

토론자는 拙稿(정대봉 2015, 2016)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의 성립과 토기문화의 전개를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 큰 줄기를 정립하고 다시 지역연구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밝힌바 있는데 공렬문토기의 전개와 여타 토기와의 관계 또한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의 일환으로서 접근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연구가 -나름의 이유는 인정하지만- 다소 지엽적이고 귀납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물질문화의 성립과 전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동안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개별 토기만의 편년 및 계보추적에 따른 편향된 연구가 집적되면서 큰 줄기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自問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전환기부터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안목으로 물질문화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다시 지역별, 시기별 연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렬문토기의 전개도 이러한 생각과 軌를 같이 한다. 공렬문토기는 신석기시대 말기를 일부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숲 시기에 이르기까지 凡時代·時期的으로 출현

1) 청동기시대 용어사용 기준안(한국청동기학회 2014)을 참고하여 '공렬문토기'로 지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하는 토기로서 존속기간으로 따지면 그 스펙트럼이 가장 긴 토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짧은 식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자는 남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초기는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상존하는데 초기전반에는 미사리유형만 확인되고 초기후반에 가락동유형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렬문토기는 초기후반으로 편년하는 옥방5지구 C-3호와 진주 평거3-1지구 5호주거지 단계부터 출현하지만 해당 유역에서 확인되는 주된 토기는 돌대문토기와 토론자가 설정한 소위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압도적인 양상이다. 때문에 발표자는 공렬문토기를 해당 시기·지역의 주체적인 문양요소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전반으로 편년된 옥방5지구 D-2호(분문 미사리유형 1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공렬문토기가 초기후반으로 편년된 옥방5지구 C-3호(분문 미사리유형 2단계)부터 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의 출현으로 초기를 전·후반으로 획기한 토론자의 편년과 일치하는지 궁금하다.

둘째, 발표자는 미사리·가락동유형에서 출토된 남강유역 초창기 공렬문토기의 구멍 크기, 등간격 여부, 구연단에서의 거리 등, 속성분석을 통해 시문 위치 및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가 역삼동·흔암리유형에서는 공렬문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며, 시문대상도 여러 기종으로 확대되고 송국리단계에 이르면 조금 더 정형화된 수준으로 안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미사리·가락동유형이 역삼동·흔암리유형보다 선행한다는 전제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형식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기적으로 등장하는 공렬문토기 또한 형식변화의 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출현에 따른 계통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즉, 발표자가 본문에서 남강유역 초기의 비주류로 인식한 공렬문토기가 前期에 등장하는 역삼동·흔암리식토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셋째, 토론자는 최근 줄고(정대봉 2016)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기 양상을 탐구한 바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²⁾ 한반도 남부지역은 물질문화적 세력이 약해진 신석기인이 구릉으로 옮겨와 수렵채집을 영위하는 가운데 한반도 서북지역 청동기인이 이주하여 일정기간 공존하는 기간을 가진 후(천선행 2014), 신석기 물질문화가 최종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공존기간 동안은 생계 영위 방식이 다른 양자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토지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뚜렷한 고고학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토론자는 문맥상 논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돌대문토기단독기’(안재호 2006; 천선행 2009)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2) 최근 하인수(2016)는 ‘신말청초’라 표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남강유역은 원거주지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먼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지적 전통(신석기 말기)이 강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공렬문토기의 출현이 조기 후반인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 중 미사리유형 1단계에 공렬문토기가 등장하지 않고 2단계에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출현시점과 그 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최초로 등장하는 공렬문토기가 남해안 신석기시대 말기 토기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4,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 , 2011,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지역성 연구」, 『東北亞歷史論叢』32, 동북역사재단.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青銅器學報』4, 한국청동기학회.
- , 2012, 「남강유역 조기~전기의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정대봉, 2015, 「青銅器時代 早期 二重口緣土器의 觀察-진주 평거3-1지구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89, 한국상고사학회.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 韓國考古學會.
- , 2007, 「無文土器時代의 早期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創刊號, 한국청동기학회.
- , 2014,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湖南考古學報』48, 호남고고학회.
- , 2015, 「청동기시대 조기설정 재고」, 『湖南考古學報』51, 호남고고학회.
- 하인수, 2016, 「신석기-청동기 전환과정에 대한 제문제」, 『韓國新石器研究』31, 한국신석기학회.

